

“80년 도청 진압작전에 헬기 기총소사 포함”

5·18 계엄군 3공수 지역대장 참회의 고백

“작전회의에서 부여단장이 헬기 근접 지원한다 분명히 말해” 송정리 비행장 격납고를 도청 건물로 상정해 동선 점검 훈련 사격대상은 전일빌딩·도청... 전일빌딩 점수 후 지휘본부 차려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옛 전남도청 진압작전에 ‘헬기 기총소사’가 포함됐다는 증언이 처음으로 나왔다. 사격 대상은 전일빌딩과 도청으로, 시민군으로부터 투입 병력을 보호하고 신속히 제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3공수여단 11대대 소속 지역대장을 맡았던 신도 전 소령은 지난 11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도청진압작전 전 열린 작전회의에서 정동인 부여단장(당시 대령)이 ‘헬기 근접 지원을 한다’는 말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작전회의에서 다루는 ‘헬기 근접지원’은 헬기 지원 사격을 의미한다. 그동안 도청 헬기 기총소사에 대한 목격담은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군 내부의 증언은 처음이다.

신 소령에 따르면 1980년 5월25일 이희성 계엄사령관 등 신군부 지휘부는 도청, 전일빌딩, 광주공원 등 광주 주요 거점을 진압하는 ‘상무총정작전’ 지침을 내렸다.

작전개시 시각은 ‘5월 27일 새벽 01시 01분 이후’였다. 26일 오전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에서는 각 여단장, 사단장 등이 참석한 지휘관 회의가 열렸고, 같은 날 오후 송정리 비행장에서 침투부대별로 작전회의가 진행됐다. 신 전 소령은 지역대장 자격으로 이 회의에 참석했다.

신 소령은 “당시 비행장 격납고에서 열린 회의에 정 부여단장, 작전참모, 각 지역대장, 중대장 등 10여명이 넘게 참여했다”며 “항공사진, 건물 도면을 비롯해 정문,

위병소, 분수대 위치가 표시된 요도(要圖) 등을 펼쳐놓고 각 팀별로 어떻게 침투할 것인지 지시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시 정 부여단장이 ‘헬기가 근접지원을 한다’고 말할 때, (나를 포함한 지휘부들은) 시민군이 기관총을 보유하고 있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며 “기관총

에 의해 투입 인원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작전을 짜다”고 회상했다. 실제 5·18 당시 시민군이 기관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실제 쏘거나 위협을 가한 기록은 없다.

당시 헬기로 시민군들이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사격을 하는 틈을 이용해 부대원들을 침투시킨다는 구상이었다는 게 신 전 소령의 증언이다.

신 소령은 또 격납고 건물을 가상의 도청 건물로 상정하고 실제 동선 등을 점검하는 훈련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11대대 1지역대로 구성된 특공조 78명은 4개팀으로 나뉘 3개팀은 정문, 후문, 별관으로 침투하고 나머지 1개팀은 지원을 하기

위해 대기한다는 작전을 세웠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전일빌딩(옛 광주일보 사옥) 헬기사격은 도청 침투에 있어 필수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도청을 장악하기 위해 전일빌딩은 점거해야할 대상이었고 신속하게 점령하기 위해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것이다.

신 소령은 전일빌딩을 점수한 이후 정 부여단장, 작전 참모 등이 이곳(전일빌딩)에 지휘본부를 차려놓고 도청 침투를 지휘했다고 증언했다.

신 소령은 당시 자신의 부대원 15명을 점거작전에 지원하기도 했지만, 5·18 이후 진급이 안돼 소령으로 전역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의 옛 전남도청 앞 집단 발표로 희생된 광주 시민들이 관 속에 안치돼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예비 신혼부부 수십명 올린 여행업체

웨딩박람회 등 통해 고객 70~80명 유치한 뒤 부도

광주의 한 신혼여행 전문업체가 웨딩 박람회 등을 통해 고객을 유치한 뒤 부도를 내는 바람에 예비 신혼부부 수십명이 금전적 피해와 함께 신혼여행마저 못 갈 처지에 놓였다.

광주동부경찰은 “운영하던 여행사를 부도내 고객들의 결제대금을 되돌려주지 않는 혐의(사기 등)로 O여행사 대표이모(44)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전남 등지에서 열린 웨딩박람회에 참여해 고객 70~80명을 유치했으며, 고객들에게 받은 계약금 1억여원을 되돌려주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장조사 결과 광주에서 신혼여행 전문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씨는 중도금

과 잔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고객들로 부터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상의 신혼여행비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말 초 고객들에게 ‘사정이 어려워 여행사가 부도처리 됐다’는 문자를 보냈으며, 미리 돈을 낸 고객들은 이씨를 경찰서에 고소하고 동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씨의 업체는 관광협회의 공제보장에 가입돼 있지만, 국외여행 기준보 상한도가 3000만원에 불과한 상태다.

이에 따라 웨딩박람회 주최측도 피해보상을 위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앞서 지난해 4월에도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아 연산 테라를 당해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기도 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불법 야시장 물의’ 광산문화원 행사 취소

광산문화원이 ‘문화교류 행사’를 내세워 황룡강 친수공원에서 ‘불법 야시장’을 운영하기로 했다는 지적(광주일보 11월 10일자 6면)과 관련, 해당 행사가 모두 취소됐다.

12일 광산구와 광산문화원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광산구 선운지구 인근 황룡강 친수공원부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1회 빛고을 문화축제’가 취소됐다.

광산구는 문화행사 개최를 용도로 하

천점용허가를 승인했으나, 불법 야시장 운영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광산문화원측에 행사취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행사 추진 과정에 광산문화원이 포장마차 등의 업체로부터 1500만원 장소 섭외비로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포장마차 계약업체는 광산문화원측에 행사취소에 따른 피해보상액 4500만원을 요구한 상태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김광석 딸 사망 재수사

서해순씨 무혐의 결론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친형이 “재수 서해순씨가 자기 딸을 일부러 사망하게 만들어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점을 취했다”며 서씨를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씨의 유가족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

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씨는 딸 서연 양이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를 받았다.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딸을 사망하게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서씨는 경찰 수사를 통해 혐의를 벗음을 따라 조만간 김광석씨와 이상호 기자를 두고 몇 명에 휩싸인 혐의의 고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술값 안내 끌려온 만취 2명 경찰서 지구대서 엽기 행각



○...만취한 30대 일행 2명이 경찰서 지구대서 성기를 꺼내는 행위를 하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했다

○...12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임모(38)씨는 지난 11일 새벽 4시 5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첨단지구대에서 1시간 가까이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볼 것

처럼 행동하고, 임씨의 일행인 최모(34)씨는 지구대에서 바지를 입은 상태로 소변을 본 뒤 경찰관을 꺼내고 비비는 바람에 옷까지 젖게 했다는 것.

○...직장 동료 사이인 이들은 이날 새벽 4시 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계산을 거부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선처를 호소.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전남대에 윤한봉 기념강의실 생긴다

5·18 마지막 수배자...내일 기념식

‘5·18 마지막 수배자’ 윤한봉 선생을 기리는 기념강의실이 전남대에 마련된다.

전남대학교는 농업생명과학대학 2호관(205호)을 ‘함수 윤한봉 기념강의실’(함수 강의실)로 정하고 오는 14일 기념식을 한다. 윤 선생은 전남대에 다니던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15년형을 받고 투옥됐다.

이듬해 2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지만, 이후에도 긴급조치 9호 위반 등으로 투옥과 도피 생활을 반복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는 내란음모죄로 수배된 뒤 화물선에 숨어들어 미국으로

밀항했다. 12년간 미국 망명생활에서도 민족학교와 재미한국청년연합 등을 만들어 통일과 민주화 운동을 벌였다.

1993년 5·18 수배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수배가 해제되자 귀국, 5·18 정신을 계승하는 활동을 벌이다 2007년 6월 세상을 떠났다.

전남대는 올해 2월 제적 상태에 있던 고인에게 입학한 지 46년 만에 명예졸업증서(학사)를 수여했고,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기념강의실을 만들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안타까운 두 친구

투병 어머니 간병하던 친구 목숨 끊자 치료비 보충했던 친구도 숨진 채 발견

암으로 투병하는 친구 어머니를 위해 보증을 섰다가 수천만원의 채무를 안게 된 20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2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7시45분께 여수의 한 모텔 객실에서 20대 남녀 2명이 옥실에 쓰러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28)는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옆에 있던 B(여·25)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부상의 한 병원으로 이송·치료를 받고 있다.

옥실 바닥에는 타다 남은 번개탄과 연탄 1장, 가스버너 등이 놓여 있었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울산의 한 공장에서 일하

던 A씨는 자신의 친한 친구 C씨의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하자 자기 일처럼 걱정하며 며칠 치료비 마련을 위해 대출 보증까지 했다. 하지만, 끝내 C씨의 어머니는 숨졌고, 충격을 받은 C씨도 목숨을 끊었다.

결국, 친구의 죽음으로 대출보증을 섰던 A씨는 대출금 6000여만원을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게 돼 힘들어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숨진 A씨와 B씨가 SNS상에서 만나 지난 8일 오후 6시에 모텔에 함께 투숙한 뒤 옥실에서 번개탄과 연탄을 피워 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

부동산 투자 ! 최 선 규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

오천경매 H. 010-3605-5000